

9연패 탈출 페퍼스, 새해 홈서 반등의 배구 펼친다



오늘 IBK기업은행과 4라운드 첫 경기
해결사 조이와 회복세 박정아 활약 기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새해 첫 홈 경기에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간다.

페퍼스는 2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지난 30일, 페퍼스는 GS칼텍스전에서 세트스코어 3-1 (21-25 25-20 25-16 25-21) 승리를 거두며 길었던 9연패를 끊어냈다.

조이가 32득점으로 해결사 역할을 했고, 시마무라(16점)·박은서(12점)·하혜진(8점)이 고르게 뛰어들었다.

박정아는 6득점에 머물렀지만 수비와 연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등 회복세가 눈에 띄었다.

박정아는 GS칼텍스의 핵심인 실바의 공격을 디그와 블로킹으로 끊어내며 수비의 중심을 잡았다. 승부처에서 상대를 흔드는 장면도 만들어냈다.

GS 칼텍스에 1세트는 내줬지만 2세트부터 페퍼스의 색이 드러났다.

페퍼스는 조이의 결정력과 시마무라의 중앙 공격이 살아나며 주도권을 되찾았고, 3세트에서는 블로킹과 견고한 수비로 점수 차를 벌리며 경기를 이끌었다. 4세트에서도 안정된 서브와 수비를 이어가면서 '완성도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

연패를 끊어낸 페퍼스의 시선은 이제 연승을 향한다.

페퍼스는 현재 6위(7승 11패·승점 20)로 상대인 5위 기업은행(7승 11패·승점 24)과 승점 4점 차이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면 기업은행을 압박하면서 중위권 싸움에 시동을 걸 수 있다.

페퍼스는 지난 17일, 2라운드 맞대결에서 셋아웃 패배를 당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설욕전도 다짐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조이가 16득점에 묶였고, 하혜진·이원정도 부상에서 막 복귀한 직후 코트에 투입되면서 선수들간의 호흡도, 라인업의 완성도도 충분치 않았다.

하지만 직전 GS칼텍스전에서 조이가 폭발력을 되찾았고, 시마무라까지 힘을 보태며 공격의 양측이 다시 살아난 점은 긍정적이다. 박정아의 수비 안정감이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행전에서는 '세트 운영'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공격수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공격의 무게감이 돋보이는 팀이다. 빅토리아를 주축으로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갖춘 팀인 만큼, 페퍼스는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우위를 점해야



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17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전에서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페퍼스는 2일 흠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KOVO 제공>

한다.

또, 동시에 지난 GS칼텍스전에서 확인한 분산 공격을 이번에도 유지해 특정 공격수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하고, 미들 라인 활용 폭을 넓혀 흐름을 끊는 장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연패 탈출로 분위기를 바꾼 페퍼스가 새해 홈팬

들에게 승리를 선물하면서 중위권 싸움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주세종 “광주서 마지막 불꽃”…광주FC와 3년 동행 연장



K리그 통산 300경기 고지 눈앞

베테랑 미드필더 주세종(38·사진)이 광주FC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광주FC가 1일 “국가대표 출신으로 팀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미드필더 주세종과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계약으로 주세종은 2028년까지 광주와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

2012년 부산아이파크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한 주세종은 폭넓은 활동량, 뛰어난 패싱력 등으로 입지를 넓혔다. 그는 이후 FC서울, 아산 무궁화, 대전하나시티즌 등을 통해 K리그 1·2 무대를 선포했고, 2021년에는 감바 오사카로 자리를 옮겨 J리그 경기도 쌓았다.

지난해 광주에 새 둑지를 틀고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과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팀을 움직였다.

주세종은 또 성실한 훈련 태도와 높은 프로 의식을 바탕으로 그라운드 밖에서도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다.

지난해 광주에서 21경기에 출전한 그는 K리그 통산 281경기에 나와 16골 30도움을 기록하고 있

다. 주세종은 이번 계약 연장으로 광주FC 유니폼을 입고 통산 300경기 금자탑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입장에서는 성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반가운 계약이다.

‘정효불’로 광주 축구 역사를 새로 썼던 광주FC는 이정효 감독의 수원삼성 이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정효 감독과 수석코치로 호흡을 맞췄던 이정규 신임 감독을 앞세운 광주는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연대기여금 미납 징계에 따른 상반기 선수 등록 금지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유스 선수들로 상반기를 버텨야 하는 만큼 실력과 경험을 고루 갖춘 주세종은 전력의 핵심이다.

또한 베테랑의 경험을 통해 젊은 선수들의 본보기 기가 되고 성장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을 시즌 주세종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주세종은 “다시 한번 광주FC에서 활약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베테랑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젊은 선수들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차준환·신지아, 밀라노 보인다…피겨 김채연·이해인 6점 차 박빙

내일부터 국대 최종 선발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는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올림픽 선발전을 겸한 제80회 전국남녀 피겨 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를 통해 올림픽에 출전할 남자·싱글 선수 2명, 여자·싱글 선수 2명, 아이스 댄스 1팀을 뽑는다.

올림픽 파견 선수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1차 선발전 점수와 이번 최종 선발전 점수를 합산해 결정

한다.

가장 치열한 종목은 여자 싱글이다.

신지아(세화여고)는 1차 선발전에서 216.20점으로 전체 1위에 올랐고, 김채연(201.78점·경기도방상경기연맹)과 이해인(195.80점·고려대)이 뒤를 이었다.

신지아는 이해인을 20점 차 이상 따돌린 만큼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올림픽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채연은 안심할 수 없다. 이해인과 불과 5.98점 차이라 작은 실수 하나로도 올림픽 출전의 명암이 엉갈릴 수 있다.

남자 싱글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춘 선수 중 차준환(255.72점·서울시청)이 1위, 김현경(231.51점·고려대)이 2위, 이해근(219.15점·수리고)이 3위를 달린다.

1위 차준환은 3위 이해근과 격차를 36점 이상 벌려 이번에 없는 한 상위 2명에게 주는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차준환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15위에 올랐고, 2022 베이징 대회에선 자신의 기록을 넘어 5위를 기록했다.

아이스 댄스는 임해나·권예(경기일반)조가 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연합뉴스

“세계실내선수권 2연패·아시안게임 첫 금 목표”

우상혁, 지난해 국제대회 7연승

‘스마일 점프’ 우상혁(29·용인시청·사진)은 유럽에서 2026년의 첫날을 맞이했다.

지난달 독일로 출국해 2026시즌 준비를 시작한 우상혁은 세계실내선수권대회 2회 연속 우승,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올려 목표로 정했다.

우상혁은 2025년 해미시 커(뉴질랜드)와 세계 육상 남자 높이뛰기를 양분했다.

우상혁은 지난해 실내 시즌 3개 대회(체코 대회 2m31, 슬로바키아 대회 2m28, 중국 세계선수권 2m31)에서 정상에 오르더니, 실외 시즌에서도 4개 대회(왓 그레비티 웰링턴 2m29, 구미 아시아 선수권 2m29, 로마 디아이몬드리그 2m32, 모나코 디아이몬드리그 2m34)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제대회 7연승 행진을 벌였다.

9월 도쿄 세계선수권에서는 2m34를 넘어, 2m36의 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24년 파리의 눈물을 씻어낸 빛나는 성과였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우승 후보’로 꼽히던 우상혁은 7위(2m27)에 머문 뒤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우상혁은 “파리 올림픽에서는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열심히 훈련했다”며 “내 노력이 성과로 나와서 기분 좋은 한 해였다”고 2025시즌을 돌아봤다.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메달 획득을 새로운 인생 목표로 정한 우상혁은 2026년과 2027년에도 우승을 향해 달린다.

“2026년, 2027년에도 좋은 성적을 내야 LA 올림픽에서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올해 3월에는 폴란드 쿠자위 포모제 토론에서 2026 세계실내선수권, 9월에는 일본에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우상혁은 2022년 베오그라드(2m34 우승), 2024년 글래스고(2m28 3위), 2025년 난징(2m



31 우승)에서 3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며 이반 우코프(러시아) 이후 11년 만에 탄생한 ‘세계실내선수권 3회 연속 메달리스트’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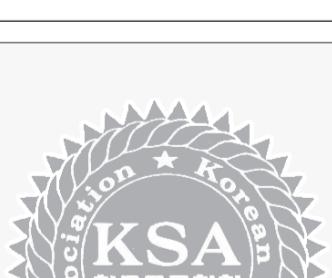
올해 폴란드에서도 메달을 목에 걸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개 대회에서 연속 시상대에 선 애로슬라브 리바코프(러시아)에 이어 16년 만에 ‘세계실내선수권 4회 연속 메달리스트’가 된다.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면 하비에르 소토마요르(쿠바), 스테판 허름(스웨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세계실내선수권 2연패에 성공한 남자 점퍼로 이름을 세긴다.

은메달만 두 개(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향저우) 딴 아시안게임에서는 첫 금메달을 노린다.

이 사이 디아이몬드리그 개별 대회에 출전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만난다.

우상혁은 “2025년 여자 대회에서 관중들이 흔드는 태극기를 봤다. 정말 감동했고 힘도 얻었다”며 “2026년에도 한국 육상을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ISO 21388
보청기 적합 관리 인증 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